

「電氣의 날」 記念

韓國電氣事業의 발자취

(2)

History of Korean Electricity Business

* 電力事業의 改編과 發展期 *

1. 電力事業의 統合

8·15解放과 더불어 豊富한 電源의 大部分이 北韓地域에 偏在하게 되고 南韓은 總設備 19만 8천kW(水力 62,240kW, 火力 136,500kW)를 가지고 1個의 發電會社와 2個의 配電會社가 分離運營하게 되자 일찍부터 各界에서는 電氣事業體의 改編 또는 統合論이 強力히 擡頭하기에 이르렀으나 그때마다 實現을 보지 못하고 論難만 거듭했다.

더우기 6.25의 動亂으로 電力施設의 大部分이 극심한 被害를 입게 되어 電力難이 더욱 加重되었을 뿐 아니라, 電力會社가 모두 自己資本蠶食的인 運營의 惡循環만 되풀이 하게 되자 이 統合論은 더욱 促進됐다. 當時 電力事業의 分離運營에 따른 缺陷으로는 첫째, 不足한 施設에다가 그나마 稼動率의 低下(52년=23.3%), 둘째, 過多한 電力損失(53년=37.1%), 셋째, 勞働生産性의 低下(58년-從業員 1人當 發配電量 15만kwh. 美國의 15% 該當), 넷째, 資金事情의 惡化와 慢性的인 赤字運營 등이 指摘되었다.

따라서 統合論은 迂餘曲折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推進되어 1951년 5월 23일 國務會議에서 電業三社의 統合을 議決하고 이어 1953년 6월 商工部長官의 諮問機關으로 「電氣事業 臨時調查委員會」를 構成, 統合에 대한 基礎的인 調查業務에 着手하였으며 이 委員會는 1953년 7월에 電業三社의 資産評價 등 統合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電氣事業體統合委員會」를 商工部に 設置하였다.

商工부는 1953년 9월에 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韓電力公社法」案을 作成하였으니 國會商工委員會를 비롯한 各界의 批判속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1959년 8월 26일 統合論이 다시 再燃되어 政府는

電業三社의 歸屬株을 拂下處分함으로써 民營化할 것을 決定하고 「發電會社 歸屬株處理 事務協議會」를 構成했다. 이 協議會는 1957년 11월 5일 財務部에서 提示한 歸屬株는 發電事業, 配電事業 및 運輸事業 등으로 分離하여 拂下한다는 原則을 審議하여 大體的인 合意를 보았고 財務部는 兩配電會社의 歸屬株를 1958년 2월 中旬까지 拂下한다는 方針을 表明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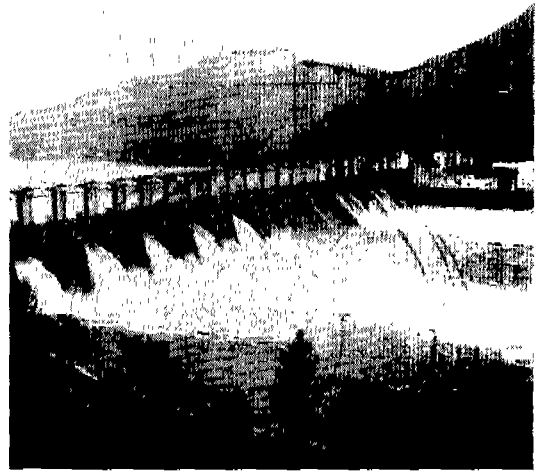
그리고 兩配電會社의 民間株主는 「民間株主 權益擁護對策委員會」를 構成하고 拂下方針에 대한 是正建議案을 提示, 論難이 거듭되다가 政府의 強力한 電力政策에 따라 1961년 6월 8일 商工部長官命에 의거 「電業三社 統合設立 準備委員會」가 構成되어 統合業務는 急進展됐다.



韓國電力株式會社 懸板式



春川水力發電所



淸平水力發電所

1961년 6월 9일 제1차 電業三社 統合設立 準備委員會 會議가 開催된 다음 21일까지 10회에 걸친 會議에서 統合에 대한 政策事項 및 事務處理 事項을 審議檢討하였고 1961년 6월 23일 마침내 韓國電力株式會社法이 公布되었다. 같은 날 韓國電業株式會社 設立委員이 商工部長官命에 依하여 任命됨과 同時에 이날 開催된 設立委員會에서는 朝鮮電業株式會社, 京城電氣株式會社, 南鮮電氣株式會社의 三社 合併契約이 三社 社長사이에 체결되어 1961년 7월 1일 歷史的인 三社統合이 實現되고 韓國電力株式會社가 創立되었다.

2. 發電設備 1千萬kW의 突破

韓國電力이 創立된 當時 우리나라의 總發電設備은 367,000kW, 供給可能 最大出力은 288,000kW에 不過한데 反하여 需要는 435,000kW로 推定되어 147,000kW의 電力不足이 豫想되었다.

(1) 第1,2次 電源開發 5個年計劃 (1962~1971년)

政府는 이와같은 어려운 需給事情을 打開하기 위하여 1962년을 起點으로 한 第1次 電源開發 5個年計劃을 樹立했다.

이 計劃은 무엇보다도 먼저 當時 가장 緊急한 課題였던 電力難解消에 力點을 둠으로써 電源開發에 政府投資의 最優先順位가 부여됐다.

計劃初期인 1961~1962년의 緊急對策事業으로는 3個의 煤質發電所 건설과 3萬kW의 發電機가 導入되는 한편 本計劃事業으로 釜山火電 등 5個의 火力과 春川, 蟾津江 등 2個의 水電 등 期間中 모두 40만2천kW가 新規로 開發됨과 同時에 舊寧越火力의

復舊로 3만kW의 出力이 增加되어 最終目標年度인 66년말에는 設備容量이 76만9천kW로 늘어났다.

特記할 것은 計劃期間中에 釜山火電 1·2號機가 竣工됨으로써 1964년 4월 1일을 期하여 解放後 19년 동안 되풀이 되었던 制限送電이 解除되어 電力解放을 이루었던 事實이다.

그러나 電力制限의 解除와 함께 電力需要의 顯在化, 그리고 産業의 急速한 發展과 家電機器의 普及 등으로 需要는 해마다 30%를 上下하는 高度 成長 (1968년 10월 피크가 100만kW 突破)을 함으로써 1967년 下半期와 다음해 上半期에 걸쳐 다시 制限送電이 實施되었다.

따라서 當初 計劃期間中 117만7천kW의 新規開發을 目標로 했던 1966년 8월의 第2次 5個年計劃은 몇차례 上向調整되고 또 이에 따른 投資財源의 充當을 위해 民間資本動員이라는 次元에서 3個 民間電力會社가 發電所建設에 參與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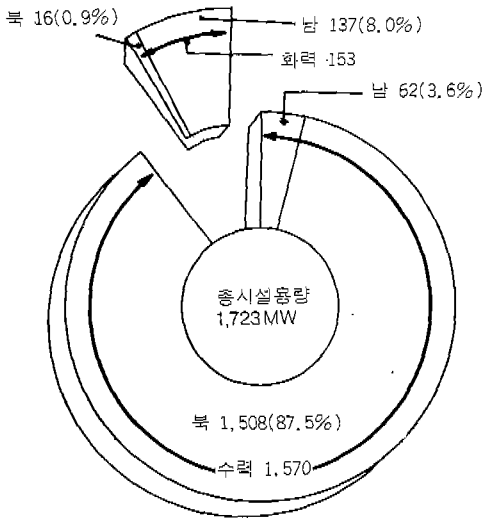
이 第2次 5個年 計劃 期間中에는 서울火電 5號機 등 汽力 157만2천kW, 衣岩 등 水力 12만5천kW, 內燃 21만3천kW 등 모두 191만1천kW가 新規로 開發됨으로써 71년말의 發電設備은 262만8천kW로 擴充되었다.

그리고 1930년 11월과 1936년 10월부터 電力供給의 한몫을 맡아 왔던 서울火電 1·2號機는 40年만인 1970년 8월 3일에 廢止되었다.

(2) 第3·4次 電源開發 5個年計劃 (1972~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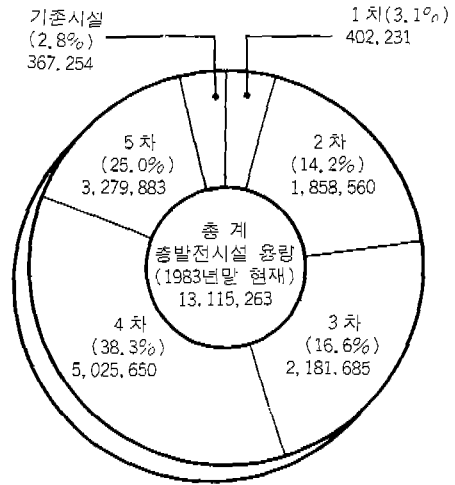
1972년부터 시작되는 3次期間에는 1973년의 石油波動으로 지금까지의 石油爲主의 電源開發計劃을 一大修正, 發電燃料多元化에로의 轉換이 試圖되었

단위 MW



해방당시 남·북한 발전시설 비교(1945)

단위 KW



5개년개발기간별 발전시설 개발실적

다.

그리고 이 期間의 初期에는 2次期間 後期の 過剩設備과 景氣沈滯로 供給過剩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後期에는 國內輸出産業의 急激한 伸張(1976년 GNP 成長率 15.1%)으로 1976년말의 豫備率은 3.9%까지 떨어져 部分的인 制限送電이 實施되기도 했다.

이 期間中에 開發된 電源은 火力 7個所 191만9천 KW, 水力 3個所 37만KW, 그리고 디젤 3만5천KW 등 모두 232만4천KW이고 營寧越火電(10만KW)등과 一部 內燃施設이 廢止되어 1976년말의 施設은 481만KW에 이르렀다.

이 期間中에는 特히 30만KW급의 大容量이 개발되어 施設의 大容量化가 促進되었으며 嶺東火電 및 入堂水電과 같은 施設 등도 이때에 竣工되었다.

한편 第4次 5個年計劃期間中에는 原子力을 비롯한 水力과 揚水 등 脫石油 및 에너지 多元化政策이 強力히 推進되었고 基底供給設備은 油專燒火力로부터 原子力 및 有煙炭火力 主導型으로 計劃이 轉換되었다.

또 燃料 및 電源立地의 峯前確保, 그리고 長期電源開發計劃을 위한 電算模型인 WASP를 導入, 實用化하는 등 業務의 効率化와 科學化에도 進一步가 이루어졌다.

이 期間에 新規로 開發된 電源은 古里原子力1號機를 비롯하여 水力 49만1천KW, 火力 307만KW, 內燃力 99만 6천KW 등 모두 514만 3천KW로서 1981년말의 設備은 983만5천KW에 이르렀다

3. 第5次 電源開發 5個年計劃 (1982~1986년)

5次기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原電과 石炭을 主軸으로 한 脫油政策에 의한 電源開發事業이 더욱 본격화 되었으며 그 일부가 하나씩 完成되어 가고 있다.

82년말에는 天然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重水爐型 原電인 3호기가 系統에 병입됨으로써 대망의 1,000만KW를 돌파하게 되었으며 기름 발전소인 湖南火力의 有煙炭겸용발전소 改造作業도 착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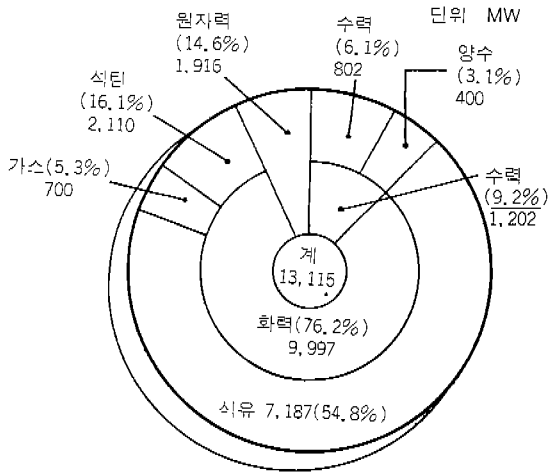
83년에는 原電 2호기를 비롯하여 大容量 石炭발전소인 西海火力 1·2호기, 三千浦火力 1호기, 高亭火力 1호기, 최초의 LNG 발전소인 平澤火力 3·4호기가 준공됨으로써 83년말 현재 發電設備은 총 1천3백11만5천KW를 기록, 우리나라의 電力事業은 이제 세계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4. 電源開發方式의 轉換

한편 70년대 後半, 즉 第4次 電源開發 5個年計劃 事業 가운데 가장 큰 特徵의 하나는 脫石油電源開發의 추진과 함께 機資材 國產化를 비롯한 發電所 建設方式의 轉換으로 要約될 수 있다.

1976년以前에 竣工된 發電施設은 大部分이 外國의 技術과 機資材로 建設됨으로써 工程의 지연과 價格上 不利益을 招來하였을 뿐 아니라 國內技術蓄積이 不振했다.

商工部는 1976年初 「導入機械施設 國產化 推進要



발전설비별 구성비(83년말 현재)

綱)을 告示, 美貨 100萬弗以上の 施設을 導入코지 할때는 政府의 事前承認을 얻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韓電은 1976년以後 着工된 모든 發電施設은 所要機資材의 導入範圍를 品目別로 統制받게 되었다.

또한 政府는 1978년 4월 18일 經濟長官協議會에서 大單位 機械工業育成方案을 決定, 發電所(原子力 除外)建設에 있어 世界有名業體와 技術提携한 國內業體(現代洋行, 現代重工業, 大宇重工業)를 契約者로 하여 分割發注方式으로 競爭入札에 부치도록 했다.

이 決定은 또 但書條項에서 性能保障, 借款條件으로 필요한 경우 韓電社長이 별도로 定하는 바에 따

라 技術提携會社와 共同으로 入札에 부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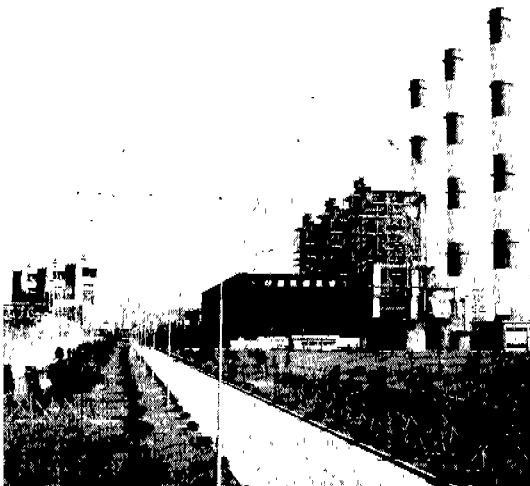
1978년 10월 12일 商工部는 公告로 美貨 300만 弗以上の 導入機械施設中 發電設備分野 등의 플랜트를 國內에서 新設 또는 增設코자 할 때는 所要機械施設을 國內入札에 의하여 調整토록 하여 國內業體 主導契約方式으로 그 方針을 변경하고 機資材의 發注方式도 現代, 大宇, 三井그룹으로 對象業體를 三元化하여 一括發注토록 調整했다.

그뒤 1980년 10월 政府는 다시 重化學分野를 統合 調整함으로써 發電設備分野는 機資材發注를 포함 Engineering 및 建設까지도 韓國重工業에 一元化토록 措置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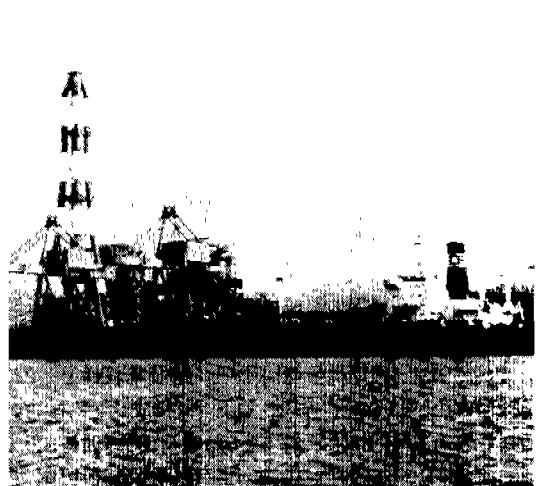
政府의 이외같은 措置에 따라 韓電은 모든 發電所의 建設事業은 嶺東火電2號機를 起點으로 所要機資材의 國內製作을 積極 勵行함으로써 發電設備의 國產化率은 平均 40~50%에 達하는 成果를 이룩하였다.

이를 分野別로 보면 建設監理를 포함한 細部設計 등의 엔지니어링分野는 아직 外國技術에 依存해야 할 部分이 많으므로 主契約者는 國內業體로 하되 先進技術陣과 技術提携토록 하여 技術의 蓄積을 圖謀하였다.

그리고 建設工事は 처음부터 國內業體가 담당하여 그동안 많은 技術을 蓄積하고 있으며 가장 核心事業인 機資材製作은 종래의 一括發注方式을 脫皮하고 西海 1·2號機와 高亭 1·2號機(主機器)는 主機器 및 補助機器를 구분하여 發注하는 Island



蔚山火力發電所



有煙炭專燒式三千浦火力1·2號機



原子力 1·2·5·6號機(古里)

Base 방식을, 그리고 高亨 1·2號機(補助機器)와 原子力發電의 補助機器는 品目單位로 分割發注하는 Piece Meal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國產化를 促進하고 있다.

5. 原子力發電時代의 展開

1970년 6월에 着工한 우리나라 最初의 原子力發電施設인 古里原子力1號機(587,000kW)가 1978년 4월에 竣工됨으로써 우리나라는 世界에서 22번째의 核發電 保有國이 됨과 同時에 本格的인 原子力發電時代가 展開되었다.

政府와 韓電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에너지 波動을 겪으면서 第4次 5個年計劃專業期間以來 電源開發計劃의 基本方向을 電源의 脫油轉換에 두고 이를 強力히 추진함과 同時에 特히 앞으로 91년까지의 10個年間の 建設基本原則을 ① 國內 賦存資源開發의 極大化, ② 輸入 에너지源의 多源化에 두고 原子力의 擴大開發에 더욱 注力키로 했다.

그 결과 첫 重水爐 原電인 3호기(678,700kW)가 82년말에, 2호기(650,000kW)가 83년 6월에 각각 系統에 병입되었으며 현재 6봉의 建設工事が 進行중에 있는데, 5호기는 85년 9월, 6호기 86년 6월, 7호기 86년 12월, 8호기 87년 9월, 9호기 88년 9월, 10호기 89년 9월에 각각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1년 까지의 우리나라 原電設備는 총 9기에 7,615,700kW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91년말까지 우리나라의 總發電設備는 22,682MW로 늘어나게 되며 電源의 構成比는 石油火力의 占有率이 83년말의 54.8%에서 86년에는 26.6%, 그리고 91년에는 19.8%로 줄어드는 반면에 原子力은 83년말의 14.6%에서 26.4%와 33.6%로 각

각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편 韓電은 이들 大規模 原電을 建設하는데 있어서 初期의 1·2·3號機는 60만kW級으로 外國一括 都給方式에 의하여 建設하였으나 5·6號機부터는 그동안 얻은 經驗과 技術, 그리고 國際的인 公信力을 土台로 幹電直營方式으로 轉換하고 容量도 95만kW級으로 擴大했다.

6. 345KV 超高壓系統의 構成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送電系統은 154kV 送電線이 그 基幹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 뒤 電力需要가 급격히 增加하고 또 電源設備의 單位容量이 大型化됨과 동시에 地域別로 集中化되는 傾向이 두드러짐에 따라서 이들 大電力을 大需要地까지 圓滑히 搬送하기 위해서는 送電의 大容量化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따라서 韓電은 7年餘의 準備作業끝에 古里-蔚山-沃川을 連結하는 345kV 新蔚山送電線과 麗水-沃川의 新麗水線建設에 着工, 4年間の 作業끝에 1976년 10월 20일 新沃川變電所와 麗水火電을 잇는 345kV 麗水送電線의 送電을 開始했다.

이 事實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35년 10월 154kV가 運轉되었던 平壤送變電設備以來 41년, 그리고 1941년 6월 220kV의 虛川江-興南 送電線 運轉開始로부터는 35년만에 비로소 超高壓時代를 여는 歷史的인 轉換이었다. 이어서 이 345kV 送變電系統은 1977년중에 沃川-西서울, 仁川火電-西서울線으로 擴大되었고 다시 1982년까지는 新沃川-西大邱-新蔚山-北釜山-新馬山-南原-新沃川을 連結하는 超高壓 Loop系統이 이루어졌다.

韓電은 이밖에도 西서울-東서울-新沃川-靑陽-西서울의 또 다른 Loop化의 計劃을 推進하고 있

는데, 이 事業이 1984년중에 完成되면 京仁과 嶺南地區를 잇는 「8」字型 Loop網이 構成된다.

그러나 앞으로 建設될 發電施設은 더욱 大容量化하고 立地問題 등으로 團地化될 展望임에 비추어 韓電에서는 現在 이 超高壓 電壓의 格上을 檢討中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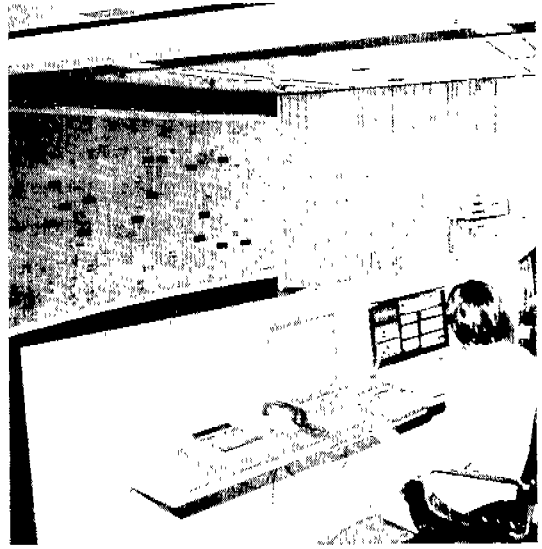
7. 給電自動化時代의 開幕

電力需要가 늘어나고 發電과 送變電系統이 擴充될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電話指令體系로 運用되던 給電系統도 1979년 7월 1일부터 自動化함으로써 電力供給의 安定을 비롯하여 經濟的인 給電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Dual on Line Real Computer System을 主軸으로 하여 우선 50個所(發電所 27개소, 變電所 23개소)를 遠方監視制御하는 自動給電機能이다. 또 이 시스템은 自動周波數制御(A.F.C)와 經濟給電機能(E.L.D)을 포함한 自動發電 制御機能을 具備함으로써 系統規模의 擴大에 對處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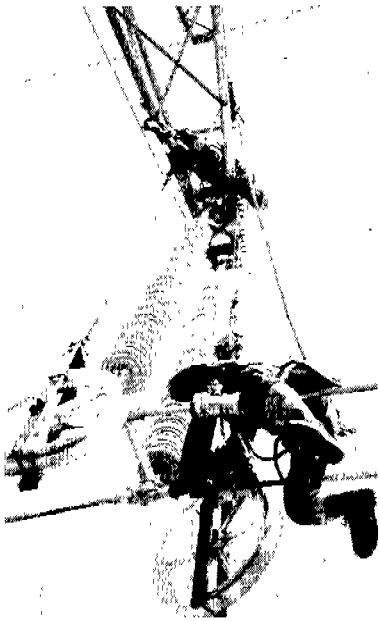
그런데 ELD보다 훨씬 機能과 效果가 앞서는 EMS(Energy Main System) 방식을 채택키로 한 韓電은 84년末에 이의 개조작업에 착수하여 86년末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中央給電室의 自動化에 뒤이어 地域給電을 맡고 있는 地方配電司令室의 自動化도 추진되어 1



韓國電力給電司令室

차적으로 1981년 2월 서울電力 配電司令室에, 이어 1983년 4월 南서울電力 配電司令室에 SCADA 시스템이 운전에 들어갔으며 1985년 8월엔 釜山, 1985년 12월에는 大邱, 1986년 12월엔 光州, 1987년 12월에는 大田의 配電司令室에 이 시스템이 확대 운용될 예정이다.



345kV 초고압송전선 건설광경

原子力發電 및 建設現況

구분 호기	구분	위 치	원자로형	용량 (MW)	제 작 자		준공
					원자로	T/G	
Turnkey	1	경남고리	PWR	587	W.H. (美)	G.E.C (英)	78.4
	2	경남고리	PWR	650	W.H. (美)	G.E.C (英)	83.6
	3	경북월성	PHWR	678.7	AECL (加)	Parsons (加 및 英)	82.12.
	4	-	-	-	-	-	-
Non-Turnkey	5	경남고리	PWR	950	W.H. (美)	G.E.C (英)	85.6
	6	경남고리	PWR	950	W.H. (美)	G.E.C (英)	86.3
	7	전남영광	PWR	950	W.H. (美)	W.H. (美)	86.3
	8	전남영광	PWR	950	W.H. (美)	W.H. (美)	87.3
	9	경북울진	PWR	950	Framathom (佛)		88.9
	10	경북울진	PWR	950	Framathom (佛)		89.9

8. 農漁村 및 島嶼電化

1964년 4월 1일 制限送電이 解除되고 電力事情이 好轉됨에 따라서 韓電은 1964년부터 그때까지 電氣가 없는 農漁村에 電氣를 供給하기 爲하 電化事業에 着手했다. 當時 1964년말 現在 全國 住宅戶數는 4백3만6천戶, 그 가운데 電氣가 供給된 電化戶數는 1백2만7천戶, 따라서 都市를 포함한 全國電化率은 25.5%, 農漁村電化率은 12.0%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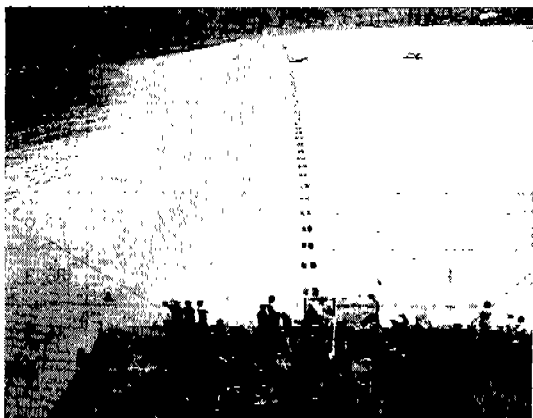
한편 政府는 當面했던 經濟開發과 農漁村의 生産力을 增強하기 爲하 制度裝置를 爲하 1965년 12월 30일 農漁村電化促進法을 制定 公布했다.

이 法의 內容은 農漁村의 生産力 增強과 農漁民의 生活向上을 爲하 政府에서 燈油稅 歲收額以上을 豫算에 計上하여 電化事業에 財政融資를 한 다음, 5年據置後 30年 均分償還도록하고 送變電工事費는 全額을 韓電이 負擔하며 配電工事費는 財政融資金과 韓電負擔金으로, 그리고 內線工事費는 需用家가 負擔토록 했다.

이 事業은 1965년부터 本格化되고 1978년 까지의 14년동안 推進되어 그동안 275만4천6백만戶를 電化함으로써 當初計劃을 100% 達成했다.

이 事業을 爲하서 그동안 政府融資金 738억4천만원, 韓電負擔金 1백11억3천5백만원, 需用家 負擔金 75억9천8백만원 등, 合計 925억7천3백만원이 投入되었다.

이와같이 農漁村電化事業이 當初 目標대로 順調롭게 마무리되자 政府와 韓電은 그동안 쌓은 經驗과 技術을 바탕으로 島嶼, 僻地, 7만9천戶에 대한 電化事業을 後續事業으로 착수, 全南 新安郡의 安佐島 등 23개 섬을 비롯하여 京畿의 永宗島, 忠南의



島嶼電化事業을 爲하 海底케이블 布設工事

元山島, 慶南의 蛇梁島, 全南의 烏島, 蘆花島 등 6개地區 50개섬의 2만8천7백33戶에 대한 電化事業을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完了함으로써 全國의 住宅 98%가 電化되었다.

이 事業에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海底 케이블 布設 등의 難工事가 이루어졌다.

한편 政府와 韓電은 83년 1월 현재 僻地 및 島嶼의 未電化住宅 56,500戶 가운데 電化가 不可能한 41,870戶(철거 및 水沒對象 2,187戶, 集團5戶以下 13,602戶, 戶當工事費 200萬元 초과 2,153戶, 기타 23,928戶)를 除外한 14,630戶에 대한 電化事業을 社會政策사업의 일환으로 83년부터 再開하여 첫해인 83년도에는 10戶이상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37억7천1백만원을 투입, 3,090戶를 電化했다. 그리고 84년도에는 6戶이상 집단지역으로 대상을 확대, 74억원을 들여 4,759戶를 電化할 계획이다.

9. 民間電力會社의 設立과 引受

1967년 群山火電의 竣工지연과 극심한 가뭄으로 水力發電 全系統의 出力이 減發됨에 따라서 電力事情은 다시 惡化되어 같은 해 6월下旬 第1次 制限送電이 實施되었고 9월부터는 制限送電의 長期慢性化가 豫想되자 電力事業은 復興途上에 있는 產業界의 커다란 陰路部門으로 指摘되었다.

이에 따라서 經濟科學審議會議는 1968년에 「電力需給對策」을 發表, 電力의 需給을 理論的인 豫想值보다도 約6% 上向調整, 1968년~1971년의 4개년동안 年間33.8%로 成長할 것이라고 豫測, 이를 그대로 電源開發計劃에 反映했다.

따라서 電源開發의 規模는 當初計劃보다도 크게 擴張되어 이 開發事業을 韓電單獨으로 推進하기에는 人力, 資金事情 등 難點이 많다는 理由로 1968년 2월 民間企業의 電力事業參與가 許容됨으로써 東海電力, 京仁 에너지, 湖南電力 등 3個 民間電力會社가 設立되었다.

◇ 東海電力株式會社

民間電力會社中에서 최초로 認可를 받은 이 會社는 雙龍財閥을 主軸으로 하는 시멘트 業界의 持株會社이다.

1969년 12월 22일 電氣事業체로 事業認可를 얻어 資本金 14억원으로 設立되었다.

西獨 Siemens와 機資材導入契約을 맺고 蔚山市 南化洞에 建設을 着手하여 1·2號機(各各 22만kW)를 1970년 12월과 1971년 3월에 竣工하고 運轉에 들어갔으며 3號機는 1972년 2월 竣工目標로 建設

중에 있었으나 1972년 2월 29일 韓電에 귀속되었다.

◇ 京仁에너지株式會社

美國 Union Oil社와 韓國火藥系에서 각각 500만달러를 出資하여 1969년 11월 3일에 設立되었다.

1969년 2월 仁川栗島에 162,000kW 2基의 建設에 着工, 1971년 10월에 完工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1969년 11월 24일 韓電과 電力需給契約을 맺었다.

◇ 湖南電力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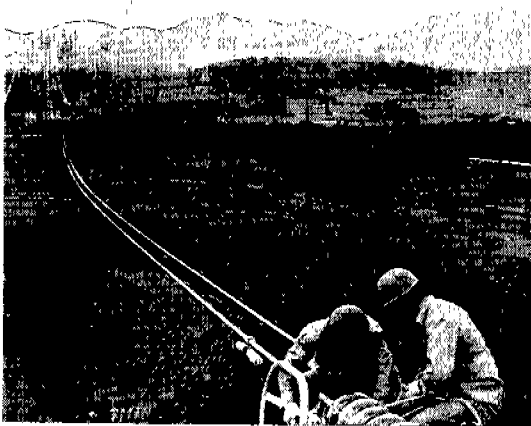
湖南精油에서 27억1천만원, 럭키그룹 및 기타의 出資 3억원 등 合計 30억 1천만원으로 1968년 7월 23일 설립되었다. 프랑스 銀行團의 商業借款으로 Babcock Atlantique 社의 機資材를 導入했다.

1969년 5월 全南 麗川郡 三日面 月內里에 30만 kW 2基의 建設에 着工, 1973년 4월과 5월에 각각 竣工되었다.

그러나 이들 民間電力會社의 發電所建設計劃은 送配電系統을 度外視함과 同時에 建設地點 역시 地域의 需給均衡을 外面하였기 때문에 竣工後에도 電力系統運用에 여러가지 問題點을 提起했다.

뿐만 아니라 그뒤 電力의 需要가 1968년의 想定值보다 크게 鈍化됨으로써 設備投資 過剩現象을 빚었고 또 民電의 建設費自體가 韓電보다도 過多하게 所要되어 發電原價가 높아져 結果적으로 韓電의 負擔만 늘어났다.

이에 따라서 政府은 1971년 10월 22일 民電引受의 原則을 수립하고 그 引渡를 希望하는 東海電力을 1972년 2월 29일 韓電이 引受하고 湖南電力역



345kV 초고압 送電線

시 迂餘曲折끝에 1973년 5월 31일 株式讓受渡契約을 체결, 引受했다.

10. 韓電의 公社化

韓國電力株式會社는 1962년 7월 1일 「電源開發의 促進과 電氣事業의 合理的인 運營」을 圖謀, 舊電氣 3社를 統合 發足했다.

그동안 韓電은 4次에 걸친 電源開發計劃을 成功의 으로 추진함으로써 設立當時 36만kW에 不過했던 發電設備을 9백39만kW(1980년末)로 擴充했다.

그러나 그 反面에 電源開發事業에 投入된 資金은 2兆원에 達했는데, 그 財源은 大部分이 借款 등 他人資本으로 充當되었다. 뿐만아니라 發電燃料代의 暴騰과 包括增資에 따른 無償株發行 및 利益配當金의 負擔 등 經營與件의 惡化로 內部的인 經營 合理化의 成果에도 不拘하고 財務構造는 계속 惡化되었다.

따라서 韓電은 1976년 7월 電源開發資金의 自體 調達能力 培養을 骨子로 하는 長期 財務構造改善計劃을 樹立, 이를 政府에 建議하였으며 政府은 同年 8月 19日 第34次 經濟長官協議會에서 이를 議決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包括增資의 廢止
- (2) 民間株式의 政府買入
- (3) 政府出資의 擴大
- (4) 減價償却制度의 改善
- (5) 最大負荷料金制度의 導入
- (6) 新規需用工事 및 償還制度의 改善

이에 따라 政府은 1976년 12월 30일 韓電法, 그리고 1977년 6월 3일 同施行令을 改正하여 包括增資制度를 廢止하고 1977년부터 1981년까지의 4년간 1억2천6백80만株의 民間株式을 買入토록 했다.

그 結果 民間株式의 買入이 完了되면 韓電은 政府가 全額出資한 公社로서의 實質的인 모습을 갖추게 되므로 會社의 運營體制를 公社로 轉換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1980년 12월 16일 國家保衛立法會議 第10次 本會議에서 議決, 同年 12월 31일 法律 第3,304號로 韓國電力公社法을 制定公布, 1982년 1월 1일附로 公社로 再發足했다.

韓電의 公社化로 韓電은

- (1) 利益配當負擔 및 無償株發行의 壓力解消
- (2) 政府의 支援強化로 事業의 安定的인 遂行
- (3) 商法適用의 排除로 業務節次를 簡素化하고 公益性을 強化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다음號에 계속)